

'상임위 표류' 또 되풀이 되나



시작은 화기애애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원내총괄수석부대표(오른쪽부터), 김태년 원내대표, 박병석 국회의장,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가 8일 국회 의정실에서 상임위원회 구성을 논의하기 위해 만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 원 구성 협상 입장차 못 좁히고 법정시한 넘겨 특위서 내일까지 상임위원 정수 조정...극적 합의 기대

21대 국회가 결국 원 구성의 법정 시한을 넘겨 장기간 표류할 우려를 낳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원 구성 시한인 8일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막판 협상을 벌였으나,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를 매듭짓지 못했다. 과거 여·야 갈등으로 원구성이 법정 시한을 넘겨 40여일 이후에야 합의에 이르렀던 관행이 되풀이될 조짐도 보이고 있다. 지난 13대 국회부터 20대 국회까지 임기 개시 이후에 상임위 구성까지 개원을 완료하는 데 평균 40일 이상이 걸렸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은 강도 높게 야당을 압박하고 나섰다.

이날 여야는 법제사법위원장을 어느 정당에 가져갈지를 비롯한 일부 핵심 쟁점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21대 국회 전반이 원 구성은 장기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회법은 첫 집회일 이후 3일 이내, 즉 이날까지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야가 핵심 상임위원회 위원장직과 국회 개헌안 등을 둘러싼 이견이 존재해 협상 지면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다. 법제사법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직을 놓고 여야의 힘겨루기도 팽팽하다. 민주당은 효율적 법률 처리와 문제인 정부 후반기 국정운영을 안정적으로 뒷받

침하기 위해서 이들 위원장직을 맡겼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통합당은 행정부에 대한 야당의 견제할 견제를 내걸고 맞서고 있다. 다만 여야는 상임위원회 위원장수 개정을 위한 특위를 구성하고, 오는 10일까지 상임위 위원정수를 합의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한수우 국회 공보수석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특위는 민주당 6명, 통합당 4명, 비교섭단체 1명 등 총 11명으로 꾸려진다. 특위는 상임위별로 몇 명의 위원을 배정할지 논의하며, 그 결과를 담은 규칙 개정안은 오는 10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국회 관계자는 "10일까지 상임위 위원정수에 합의하면 교섭단체 등이 상임위원 선임을 제출하고 이를 토대로 상임위원장 선출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는 오는 12일까지 상임위원장 선출을 완료하는 방안을 논의했으나 합의에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이날 최고위에서 "야당의 위법하고 잘못된 협상 자세는 결코 성과를 얻지 못할 것이다. 지금이라도 국회법을 지켜서 국민을 위해 일하는 국회 개원에 협조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고 당부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만약 과거 관례대로 한다면 6월내 추경처리는 불가능하다. 상임위 배분 때문에 국난 극복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는 오류를 민주당은 절대 범하지 않겠다. 국민에 대한 국회의 책임은 단 하루도 늦출 수 없다"면서 "더 이상 어딘 이유라도 법을 어기는 잘못된 행태를 정당화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김태년 "대북전단 살포금지법 입법"

민주당 원내대표 "박근혜 정부 때도 중지...정쟁 안데"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8일 "일 구성이 완료되면 대북전단 살포금지법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집경지역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한반도 평화를 위해 백해무익한 대북전단 살포는 중지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북전단 살포 문제는 정쟁의 소지가 없다"며 "야당도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책임 있는 자세로 대북전단 문제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5년 3월 무력충돌 우려 등으로 전단 살포를 중지시킨 바 있다"며 "미래통합당이 야당이 됐다"고 다룬 소리를 해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최근 남북 긴장 분위기와 관련해선 "북한의 진의와 의도를 정확히 분석해

냉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북미·남북관계 교착 상태에서 북한을 자극하는 몇 가지 사태가 전개됐다. 김정은 국무위원장 관련 허위정보와 가짜뉴스가 국내에 광범위하게 유포됐는데 북한이 체질적으로 민감한 '김정은 유교설'과 연관된다"라고 분석했다. 또 김 원내대표는 빠른 21대 국회 원구성을 통한 3차 추경 마무리도 강조했다. 그는 "1, 2차 추경은 방역체제를 강화하고 취약계층과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것이었다. 3차 추경은 경제위기 극복과 한국판 뉴딜 추진을 위한 실탄이다"며 "3차 추경의 신속한 심사와 처리를 위한 빠른 원 구성에 협력할 것"을 촉구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저무는 친이·친박

통합당 김종인 비대위 청년·여성 신주류 부상

4·15 총선 참패와 김종인 비대위 체제 출범을 계기로 약 15년간 보수 권력을 양분해온 친이·친박의 퇴조가 뚜렷해지고 있다. 대신 청년·여성·호남이 신주류로 부상하며 양대 패권 세력의 공백을 채워나가는 모양새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미래통합당 비대위원 9명 가운데 김 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 이종배 정책위의장 등 당연직 3명을 제외한 6명 중 5명이 청년과 여성이다. 김병민, 김재섭, 정원석 비대위원 등 3명은 1980년대 생으로 당의 체질을 청년 위주로 바꾸는 책임을 맡았다. 이른바 '꼰대 정당' 이미지를 청년층을 앞세워 바꾸겠다는 전략이다. 이들 젊은 비대위원은 8일 비대위 회의에서도 '청년 위주의 당 확대 재편'을 주제로 독일 기민당과 기독교사회당 내 청년 정치 입문 조직인 '영 유니온'(Die Junge Union Deutschlands·JU) 형태의 조직 결성 방안 등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내 여성의 입지도 커지고 있다. 입양한 딸과 조카 등 세 아이를 키우는 '싱글맘' 변호사로 21대 국회에 입성한 김미에 비대위원과 도시계획학 박사이자 20대 의원 출신인 김현아 비대위원은 각 전문분야를 바탕으로 당의 진로를 구상하는 데 속은 역할을 하고 있다. 당대변인에 기용된 초선의 김은혜 의원의 활동도 두드러지고 있다. 영남 중심 정당에서 소수 중 소수였던 호남 인사들의 약진도 주목된다. 김 위원장은 지난 3일 초선 모임 대상 강연에서 "이번 총선에서 호남에 후보를 안 낸 것은 문제가 많았다"면서 당의 전통적 지지기반인 영남을 벗어나 호남으로 '서진'할 뜻을 밝힌 바 있다. 지역구 관리와 공천 실무를 맡아 요직으로 쫓기는 조직부총장에 전북 익산 출신의 함경우 경기 고양을 당협위원장을 임명한 것도 이 같은 김 위원장의 의중이 반영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연합뉴스

문대통령 "시민단체 활동 되돌아볼 계기"

"이 할머니, 위안부 운동 역사"...피해자 중심 문제해결 재확인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의 회계 부정 의혹 등 각종 논란과 관련해 시민단체를 향한 무거운 경고를 담은 첫 메시지를 발송했다. 정의연 사태가 불거진 이후 한 달 동안 침묵해온 문 대통령이 입을 연 것은 터는 혼란을 방지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정의기억연대 마포 센터 소장 A씨가 숨지면서 사태가 확산하고 있는 점도 외면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일단 정의연 논란을 '시민

단체의 행태를 되돌아볼 계기'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투명 관리, 시민단체 기부금 및 후원금 모금활동의 투명성 강화를 강조했다. 시민단체를 일종의 성격으로 대하면서 정의연과 윤미향 의원에 대한 비판을 "친일세력의 발악"이라고 하는가 하면 이용수 할머니의 고발이 2012년 민주당 비례대표 공천 탈락 탓이라는 여론 일각의 시각과 큰 차이가 있다. 문 대통령의 이번 메시지는 위안부 운동

이 더 타격을 입어선 안 된다는 위기감의 발로로 보인다. 정의연 사태 와중에 위안부 운동의 상징인 이용수 할머니가 사실상 '2차 가해'를 당하고 운동의 역사가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상황에 고민이 컸던 것이다. 실제로 정치권과 사회 일부에선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비하하고 위안부 운동의 진정성을 훼손하는 발언들이 이어졌다. 문 대통령으로서 이런 불순한 움직임에 제동을 걸지 않으면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단일 대오에 균열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의식했을 수도 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윤 의원과 정의연을 끝내 거명하지 않

은 채 이 할머니를 '위안부 운동의 역사'로 표현하며 헌없는 존경심을 나타냈다. 이에 문 대통령의 진심이 진영논리에 기반한 '윤미향 감싸기'가 아님을 보여주는 것이라 반응이 나온다. 청와대 관계자도 "윤 의원을 향한 공세가 부당하다는 뜻이 있거나 그런 의도가 담긴 것은 아니다"라며 "윤 의원과 정의연에 거리를 두면서 중립적으로 메시지를 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피해자들의 상처는 치유되지 못했고 진정한 사과와 화해에 이르지 못했다"며 "피해자 중심의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해결"이라는 원칙을 재확인하기도 했다. 피해자가 배제된 정치적·외교적 합의를 지양하고 일본의 진정성 있는 사과를 받아내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셈이다. /연합뉴스

민주 "기부금 투명성 강화 입법 조치"

더불어민주당은 8일 문재인 대통령이 시민단체 회계부실 근절책을 주문한 것과 관련해 "21대 국회에서 기부금통합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관련 입법과 조치를 강구해 나가겠다"고 예고했다. 강윤식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기부금과 후원금 모금활동의 투명성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고, 어떻게 사용되는

지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며 이렇게 밝혔다. 문 대통령이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민주당 윤미향 의원과 정의기억연대(정의연)와 관련한 논란에 대해 "기부금 또는 후원금 모금 활동의 투명성을 강화하겠다"고 주문한 직후 당도 보조를 갖춘 것이다. /연합뉴스

해피니스CC 회원모집(19차) 공고

■ 모집기간 : 2020. 06. 01 ~ 2021. 12. 31
 ■ 위치 : 전남 나주시 다도면 다도로 171-60
 ■ 코스규모 : 회원제18홀, 대중제18홀 (전장 12,884M) 중 회원제 18홀 Par 72 (전장 6,663M)

VVIP 정회원 (3차)	모집인원 : 10명	중중 / 평일 회원 (4차)	모집인원 : 225명
- 입회금액 : 6억원 - 회원특전 : 선택 - A형, B형 중 선택(1) A형) 정회원 1인 : 그린피면제, 골프호텔 할인혜택 정회원 동반3인 그린피 50% 할인, 연30회 그린피면제 (1일-1회 사용) 지정회원엔 그린피 면제 위임시 동반3인 그린피 70%할인 (1일-1회 사용) 비회원엔 그린피 면제 위임시 그린피 70%할인 (1일-1회 사용) (단, 그린피 면제는 정회원, 지정회원, 비회원 중 1일-1회만 사용가능) • 지정회원 2인 : 그린피 면제(단 배우자, 직계가족 또는 임직원) • 무기명카드 1매 발급 : 그린피 50% 할인 (연 144회 사용/월 12회 소멸성, 1일-1회 사용)		- 입회금액 : 3,000만원 - 회원특전 : 평일회원 1인 : 주중 그린피 70%선 할인	
VIP 정회원 (8차)	모집인원 : 40명	중중 / 평일 회원 (5차)	모집인원 : 49명
- 입회금액 : 4.5억원 - 회원특전 : 정회원 1인 : 그린피면제, 골프호텔 할인혜택 정회원 동반3인 그린피 50% 할인, 연20회 그린피면제 (1일-1회 사용) 지정회원엔 그린피 면제 위임시 동반3인 그린피 70%할인 (1일-1회 사용) • 무기명카드 1매 발급 : 그린피 50% 할인 (연 120회 사용/월 10회 소멸성, 1일-1회 사용)		- 입회금액 : 1억원 - 회원특전 : 평일회원 1인 : 주중 그린피 면제, 주말 50%할인 무기명카드 1매 발급 : 주중 그린피 50%할인 (연 36회/월 3회 소멸성, 주중 1일-1회 사용)	
하트 정회원 (5차)	모집인원 : 10명		
- 입회금액 : 3억 - 회원특전 : 정회원 1인 : 그린피 면제, 골프호텔 할인혜택 지정회원 1인 : 그린피 면제(단 배우자, 직계가족 또는 임직원) • 무기명카드 1매 발급 : 그린피 50%할인 (연 72회 사용/월 6회 소멸성, 1일-1회 사용)			
해피 정회원 (6차)	모집인원 : 10명		
- 입회금액 : 1억6,000만원 - 회원특전 : 공동 - 정회원 1인 : 그린피 면제, 골프호텔 할인혜택 선택 - C형, D형 중 선택(1) C형) 무기명카드 1매 발급 : 그린피 50%할인 (연 36회 사용/월 3회 소멸성, 1일-1회 사용) D형) 지정회원 1인 : 준회원대우 (배우자, 직계가족 또는 임직원)			

입회금 납부안내			
은행명	계좌번호	계좌번호	비고
광주은행	001-127-012066	해피니스컨트리클럽 (주)	계좌입금 20% 납입 후 1개월 내 잔금 완납
신청 방법			
• 신청절차 : 가입신청서 교부 → 가입신청서 접수 및 입회금 납입 → 골프장 내규에 의거 → 회원번호 부여 및 회원증 발급 •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 해피니스CC프장 코스의 시설개요 • 위치 : 나주시 다도면 다도로 171-60 코스규모 : 회원제 18홀, 대중 18홀 - 총 36홀 코스설계 : 임플로디사인			
신청서 구비서류 안내			
개 인	법 인		
• 입회신청서 1부(당사 소정양식) • 주민등록등본 1부 • 본인 및 지정회원 반명함판 사진 각3매 • 도장	• 입회신청서 1부(당사 소정양식) • 법인등기부등본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본인 및 지정회원 반명함판 사진 각3매 •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증명서 각1부 • 법인인감인감증명서 1부 포함		
• 계약서 : 정회원엔 그린피 면제(회원대우) / 환급시 : 모든 특전제 • VIP정회원 및 하트 회원엔 해피정회원은 신협 담보대출 70%선 (신용등급에 따라 추가대출 가능)			

가입문의 T. 061)330-5001~4, F. 061)330-5009
www.happinesscc.com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당**

▶ 절대 수수료,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 파악 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 가능

▶ 국가신용관리사가 직접관리 ◀
수수료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신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NAVER 채권추심 회수왕 24시간 상담가능

새한신용정보(주) 010-6833-1600
직통전화 062)513-4306